

2016 새 설계

김영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

# “제조업 인프라 틈새시장 발굴 창업 촉진”

농수산물 6차산업 특구에 R&D 기회  
에너지밸리 협업 강화 中企 진출 지원  
‘1시장 1대표 먹거리’로 시장 브랜드화

“중소기업인의 경영 애로를 발굴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을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영환(50)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은 지난 13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장의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 사업들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정책을 알리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1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올해 새롭게 개편되는 지원시책과 창업·R&D·정책자금·수출·소상공인지원 등의 주요사업 등을 안내하는 중소기업 시책설명회를 여러 지원기관들과 함께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지역 가전산업의 활력제고 ▲농·공상융합 중소기업 지속 육성 ▲한전과 협업을 통한 에너지 중소기업 육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 등을 들었다.

김 청장은 “광주의 가전산업은 생산액면에서 한때는 GRDP의 24%(2013년 기준 7.2조원)를 차지하며 자동차산업과 더불어 광주경제를 견인하던 효자 산업이었다”며 “최근 대기업의 해외이전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지자체와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역량을 모으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 지역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전생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틈새시장을 발굴하거나 유망한 품목·업종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지역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수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분야 중소기업들이 전체 제조기업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6차 산업 관련 특구 20곳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소상공인지원사업, R&D 기회제공, 수출·판로 등의 다양한 사업들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우리 지역 기회요소로 부상한 한전 ‘빛가람 에너지밸리’와 연계한 상생 사업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 청장은 “한전이나 한전자회사, 지자체 및 연구기관들과 협업을 더욱 강화해 더 많은 기업이 우리 지역으로 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기업들이 업종 다각화를 통해 에너지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책을 좀더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와 소상공인 사관학교, 창업학교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동 브랜드개발 등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먹거리·볼거리 등을 발굴·지원하고 ‘1시장 1 대표 먹거리’ 등의 시장 브랜드화 노력에 힘써 장흥 정남진 토요시장이나 대인시장 같은 성공적인 전통시장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 청장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의 경제 침체 지속, 국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올해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잘 활용하고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핵심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해 신시장 개척에 매진한다면 우리경제는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 출신인 김 청장은 석산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으며 산업통상부장, 통상협력총괄과장,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지원단장을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불안한 ‘신년 경제’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00.01 (-16.27)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2)
↓ 코스닥 683.19 (-2.84)	↑ 환율 (USD) 1213.40원 (+9.40)

## 환율 1213.4원

폭등

### 9.4원 ↑ ...최고치 경신

글로벌 증시 불안에 급등세를 재개한 원/달러 환율이 다시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1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증가가 1213.4원으로 전일보다 9.4원 올랐다.

이는 2010년 7월 19일의 1215.6원 이후 약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1일 1209.8원, 12일 1210.3원으로 마감하는 등 최근 거듭 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원화가 위안화 환율 절하에 당당히 약세를 보이며 시작됐다.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은 누그러졌지만, 이후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 불안이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부채질했다. /연합뉴스

## 경제성장률 3%

하향

### 기준금리 年 1.5% 동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서울 중국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동결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이같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은이 작년 10월 발표한 3.2%에서 서석달 만에 0.2% 포인트 내린 것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1.7%에서 1.4%로 0.3% 포인트 낮췄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배경에 대해 “중국의 외환시장 불안과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주가가 상당 폭으로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최근 국내외의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정부 예상치(3.1%)보다 0.1% 포인트 낮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2.8%), 한국경제연구원(2.6%), LG경제연구원(2.5%) 등 민간연구소 전망치보다는 높다. /연합뉴스

## 주택경기 전망

침체

### 건설업체 49%가 비관적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의 주택건설업계가 올해 1분기 주택경기가 다소 침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경기 침체 이유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꼽았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4일 광주·전남 등 전국 103개 회원을 대상으로 한 ‘2016년 1분기 주택경기전망 설문조사’의 결과, 설문에 참여한 주택건설업체의 49%가 올해 1분기 주택경기가 지난해 4분기보다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40%는 전 분기보다 침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보다 회복될 것이라고 답한 업체는 11%에 불과했다.

주택경기의 침체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답이 37%로 가장 많았고, ‘주택시장 불확실성 증대(27%)’, ‘실물경기 회복 불투명(18%)’, ‘부동산 추가 규제완화 지연(3%)’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에 대한 이유는 ‘신규 분양시장 호전 지속 예상(33%)’,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예상(20%)’ 등이 많았다.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62%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고, 26%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주택가격 상승을 예상한 업체는 12%에 그쳤다. 주택가격 하락률은 응답자의 74%가 5% 이하일 것으로 내다봤다. 11%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16%)이 6~10% 내릴 것이라는 예상(10%)보다 많았다. /김대성기자 bigkim@

## 아시아 최대 자동차 부품 박람회

### 금호타이어 ‘도쿄오토살롱’ 참가

금호타이어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 마쿠하리 메세 전시장에서 열리는 ‘도쿄오토살롱(Tokyo Auto Salon 2016)’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내 타이어 업계 중 유일하다.

일본 도쿄오토살롱은 미국 세마쇼(SEMA Show), 독일 에센모터쇼(ESSEN Motor show)와 함께 세계 3대 튜닝쇼로 꼽히는 아시아 최대 자동차 부품 박람회다.

이 행사에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를 비롯해 휠, 배터리, 각종 튜닝부품 제조사 등 4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30여만명의 관람객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박람회에 포물러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만든 제품 브랜드 ‘엑스타(ECSTA)’를 전시한다. 엑스타 PS91, 엑스타 V720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고성능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이

다. 또 일본시장에 신제품으로 출시될 센스(SENSE) SE 11과 프리미엄 SUV, 겨울용, 오프로드용 등 다양한 성능의 타이어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호우 금호타이어 일본법인장은 “도쿄오토살롱은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기술 전략과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금호타이어가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한 역동적인 프리미엄 브랜드임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기아차, 전남지역본부 신설

기아차는 광주·전남을 통합해 관리하던 지역본부 체제를 분리해 전남지역본부를 신설한다.

기아차는 그동안 유지했던 광주전남지역본부 체제를 광주지역본부와 전남지역본부로 분리해 광주 구 흑석동에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성안)를 새로 뒀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는 RV차량 판매 증가, K5 시장 안착, 신형 K7 출시 예정으로 지역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지역본부 체제로는 이를 관리하기 힘들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지역본부 분리로 지역 밀착 마케팅과 세심한 관리로 전남 지역 판매 증대와 고객 만족도 향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지역본부의 관할 구역은 전남 5개 시와 13개 군으로 직영지점 14곳과 대리점 15곳의 마케팅 및 판촉 활동을 맡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7층 상가건물매매

- ▶ 1층 (커피숍)
- ▶ 2층~5층 (사우나, 주택)
- ▶ 6층~7층 (설계사, 건축사)

- ※ 은행대비 최고 안정적 상가건물
- ※ 공실 없음 / 울시설 / 월세 책임보장

☆ 월수익 1,000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2,000만) (보1억5천/ 용6억)

## 매가 16억

(7층상가건물, 사우나,커피숍 직영가능하므로 수익률 상승)

※주인 직매 010-6670-9800 / 010-7384-7800

# 신축상가 원룸 매매

##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 4층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보 5,000만 월 500만 ☆ (용1억2천)

## 매가 6억 8천만

※ 상가겸 원룸건물이므로 장래 갑어치 상승 확실히 있음

010-6834-4800 010-6832-9700